

GANGJIN 

Web Contents




목차

목차	2
농사정보	4
주간 전남 농업 정보 (제 252호)	4
첨부파일(2)	4

주간 전남 농업 정보 (제 252호)

작성일 2019.10.02 09:37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26

첨부파일(2)  252호(pdf).pdf 392 hit/2.01 MB [다운로드](#) [미리보기](#)
 캡처.png 69 hit/117.3 KB [다운로드](#)

최고소득 품목...시설재배는 딸기, 노지재배는 포도

- 농촌진흥청, 2018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-

-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2018년산 주요 농산물 52품목(쌀, 콩, 축산물 등 일부 제외)에 대해 5,3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- 과수·화훼 재배농가는 전년대비 소득이 증가하였고, 식량작물·시설채소는 소폭 증가, 노지채소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10a(1,000m²)당 소득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시설딸기(축성)로, 전년대비 3.6% 증가한 1,173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. 시설작물 중 딸기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품목은 축성오이(1,165만 원), 장미(1,050)였으며, 노지작물 중에서는 포도(492), 배(354), 복숭아(346) 등 과수가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.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최근 3년 소득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전통적 식량작물인 겉보리(17만 원), 밀(17만 원), 쌀보리(15만 원) 등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노동시간당 소득 면에서는 고랭지무(47천 원/시간), 시설포도(38), 고랭지배추(33), 쌀보리(31), 가을배추(28) 등 노지채소 및 식량작물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.(노지채소는 포전거래로 수확노동 절감, 식량작물은 기계화 등에 의한 노동력 감소)
-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증가한 품목은 27개이고, 소득이 감소한 품목은 21개로 분석되었다.
- 전년대비 소득이 50% 이상 크게 증가한 품목은 시설고추(59.2%), 고랭지무(53.0%) 등이었다.

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

목록

GANGJIN

Web Contents

